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임진왜란, 병자호란 지도

공부법

- 16세기 동아시아 정세: 명, 조선,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기
- 임진왜란, 정묘·병자호란: 전쟁의 배경 - 전개 과정 - 결과를 완벽하게 알아두기

임진왜란



정묘·병자호란



16세기 동아시아

명	정치 혼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능한 황제 + 환관이 국정 차지 + 이갑제 해체 → 사회 혼란 	
	북로 북로남왜	북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쪽의 오랑캐(몽골)가 조공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명 공격 토목보의 변(1449): 명 황제가 몽골 오이라트부에게 포로로 잡힘 → 만리장성 보수 경술의 변(1550): 몽골 타타르부가 베이징 포위
		남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닝보의 난(1523): 일본 무역선이 닝보에서 난 일으킴 → 명이 강함 무역 중단(1547) → 왜구 불만↑ + 무로마치 막부의 중앙 통제 약화 → 왜구(후기 왜구)가 명 동남 해안 침략 → 왜구(후기 왜구)는 동중국해·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 확장, 밀무역 가담
	장거정 개혁 (1572 ~ 1581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로남왜 위기 → 명 재정 악화
	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거정: 명 만력제 때 내각 대학사 일조편법 시행: 세금을 지세(토지세)와 정세(인두세)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 몽골과 강화(화해) FOR 군사비 절감 단속 강화: 만리장성 방어 강화, 남쪽 왜구 단속 강화 관료 업적 엄격하게 평가
결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명 재정 호전 BUT 장거정 사후 관료들의 불만↑ & 환관의 부패↑ → 정치 혼란 	
조선	정치 상황	15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훈구 세력이 정국 주도
		16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림 세력이 정국 장악: 봉당 형성, 성리학 중심 사회 구축 BUT 봉당 간 대립 심화 수취 제도 모순: [해지주의 토지 경병 심화, 방납제 운용 → 백성 부담↑ 국방력 약화: 장기간 평화 및 군역 제도의 모순으로 국방력 약화
	명, 여진과 대외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명과 대외 관계: 조공·책봉 관계 유지 여진과 대외 관계: 교린 관계(대등한 위치에서 교류, 우호 관계 유지) 	
일본과 대외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린 관계: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, 우호 관계 유지 3포 개항(15C 초) FOR 일본과 무역: 부산포(부산), 제포(진해), 영포(울산) 계해약조 체결(세종, 1443): 일본과 조선이 3포에 설치한 왜관을 중심으로 제한된 교역 전개 BUT 3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무역 확대 요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조선 정부가 일본인 통제 강화 → 일본인들이 3포 왜란(1510), 을묘왜변(1555) 일으킴 → 조선은 비변사 설치 FOR 외적 침입 대비 		
일본	센고쿠 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오닌의 난 발발(1467 ~ 1477): 쇼군 후계자를 둘러싼 내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이후 센고쿠 시대 전개(1467 ~ 1590): 센고쿠 다이묘들 간 패권 다툼이 진행되는 시대 → 일본이 조총 도입 BY 포르투갈(1543) → 나가시노 전투(157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오다 노부나가 의 조총 부대 +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 VS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부대 → 오다 노부나가 승리 BUT 사망 →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 통일(1590) 	
	도요토미 히데요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농 분리: 무사와 조닌은 조카마치(다이묘 성 주변)&농민은 농촌에 거주, 에도 막부까지 유지 농민들의 무기 몰수, 신분 이동 금지: 하급상 풍조 사라짐 토지 조사 시행 → 도량형 통일, 토지 단위 통일, 연공(세금) 기준 마련 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		임진왜란	
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 통일(1590)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 강화: 전쟁을 통해 센고쿠 다이묘의 군사력 약화시키는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권력 강화 시도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과의 무역 확대 요구 • 조선의 통신사 파견(1590) → 조선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의견 채택 		
전개	임진왜란 (1592)	일본의 침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명가도: 일본이 조선에게 명 정벌에 협력할 것을 요구 →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 → 전쟁 발발: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부산 상륙(1592) → 일본군은 조총을 활용해 부산진 전투 승리 → 일본이 한성, 평양 함락: 선조(조선 왕)는 의주까지 피난 → 이순신 한산도 대첩 승리: 일본군 보급로 차단 + 조선 전국에서 의병 활약
		명의 참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참전(명 만력제) FOR 라오동반도와 베이징 보호 :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 → 조·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(명 이여송 참전) → BUT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(명 이여송 참전) → 전황 교착 상태에 빠짐 → 명의 제의로 강화 협상 시작(조선은 반대, 1593 ~ 1596) → 일본의 무리한 강화 조건으로 협상 결렬
		일본이 제시한 강화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황제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비로 삼는다. •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 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한다. • 조선의 남부 4도(경상, 전라, 충청, 경기)를 일본에 할양한다. •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일본에 볼모로 보낸다. • 명과 일본 간의 강합 무역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한다. •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. •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.
	정유재란 (1597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 발발(1597) →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→ 일본군 철수(1598)

임진왜란 이후의 동아시아

임진왜란의 결과	명	재정난 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으로 인해 재정난 심화 →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각 지방에 환관 파견 → 지방에서 무리한 광산 개발 및 세금 징수 + 신사증과 환관의 전횡(부패) → 농민 봉기↑
		국방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이포(대포) 수입 BY 네덜란드(17C)
	조선	전쟁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의 피해↑: 인구 감소, 토지 황폐화, 조선인들이 일본 노예로 끌려감 재정 악화 → 공명첩 발급 FOR 부족한 재정 보충 훈련도감(중앙군) 창설: 포수·살수·사수로 구성
		명 숭배 인식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조지은: 명 숭배 인식 강화 → 만동묘 세움 FOR 명 황제 모심 관우 숭배 사상 유입 BY 명 EX) 동묘, 관우상
		일본과 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담경채환사 파견(1607) : 조선 → 에도 막부 FOR 일본 화친 요청에 회답 및 포로 송환 요구 조선과 일본 국교 재개(1607) 기유약조 체결(1609): 조선이 쓰시마를 통해 에도 막부와 무역 재개 통신사 파견(1607 ~ 1812) : 조선 → 에도 막부 FOR 학문·문화 교류, 양국 우호 관계 유지, 일본 국정 탐색
	일본	임진왜란의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에서 많은 군인들 사망 → 남은 무사들과 농민들의 세금 부담 & 노동력 부족↑ → 조선인들을 포로로 잡아와 인력난 해결
		에도 막부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세키가하라 전투(1600) : 서군(이시다 미쓰나리) VS 동군(도쿠가와 이에야스) → 동군(도쿠가와 이에야스) 승 →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 수립(1603)
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누르하치가 팔기제 정비 → 여진족 통일 → 후금 건국(1616), 수도: 허투알라 		
임진왜란 이후 문물 교류	명 → 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문용: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파병된 명 장수, 조선에서 궁궐 축조 사업에 참여 	
	일본 → 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왜: 임진왜란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, 대략 1만 명 김충선(사야가, 일본인): 항왜, 조선에 화약 제조법·조총·사격술 등 전파 고추, 담배 등 신작물 전래 	
	조선 → 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재 약탈(조선 → 일본): 도자기, 서적, 금속 활자 등 약탈 TO 일본 인적 자원 약탈(조선 → 일본): 유학자, 도공, 목수, 한지 제작공, 인쇄공 등 끌고 감 TO 일본 이상평(도공): 임진왜란 중 일본에 끌려감, 일본에서 아리타자키 생산(고령토로 제작) 강항(유학자): 정유재란 중 일본에 끌려감, 후지와라 세이카와 교류 김환: 임진왜란 중 일본에 포로로 끌려감, 일본의 행정·재정 업무에서 활약 	

		정묘·병자호란
후금 건국	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누르하치가 팔기제 정비 → 여진족(만주족) 통일 → 후금 건국(1616) • 수도: 허투알라(흥경)
	팔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팔기제: 후금·청의 행정·군사 조직 • 조직 방법: 후금의 남성을 8개 기(깃발)로 나눔 → 후금의 남성들은 평소엔 일반인으로 생활, 전쟁 시에는 군인으로 동원
	후금 VS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금 VS 명: 누르하치는 후금 건국 이후 명과 대립 → 명이 조선에게 파병 요청 → 광해군(조선)의 종립 외교: 강홍립 파병 BUT 후금과 직접 전투 피할 것을 지시 → 사르후 전투(1619)에서 조·명 연합군 패배, 강홍립은 후금에 항복 → 후금이 라오동 지방 차지 → 조선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 거절, 후금과 우호 관계 유지
조선	광해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토지 대장 및 호적 재정비 • 궁궐 및 성곽 수리 • 종립 외교: 후금 ↔ 명 사이에서 종립 외교
	인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인이 광해군 종립 외교에 불만 → 인조반정 발발(1623): 서인이 정변 일으킴 → 광해군 폐위, 인조 즉위
정묘호란 (1627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윤룡 군대가 평안도 가도에 주둔(1622 ~ 1629) FOR 후금 정벌 및 라오동 지방 수복 → 인조(서인)의 친명배금 정책: 명과 친하게 지내고,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→ 명이 인조반정을 인정하는 대가로, 조선에게 모윤룡과 함께 후금을 공격해달라고 요구 → 인조가 명의 요구 수용 → 후금이 조선에 불만
	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금이 조선 침략 → 조선의 관군, 의병이 후금에 대항
	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형제 관계 체결: 후금이 형, 조선이 동생
병자호란 (1636 ~ 1637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흥타이지가 청 건국 및 스스로를 황제로 칭함(1636) → 청이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→ 조선 내 척화론(윤집: 청과 싸우자) VS 주화론(최명길: 청과 화해하자) → 척화론 주장 채택 → 조선이 청의 군신 관계 요구 거부
	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흥타이지가 직접 조선 침략 →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항전 → 왕비·왕족이 피란갔던 강화도 청에게 함락 → 조선 구원군마저 청에게 패배
	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 • 청과 군신(조공·책봉) 관계 체결, 명과 국교 단절 • 조선의 소현 세자가 청으로 끌려감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: 청

청	명 멸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멸망(1644) BY 이자성의 농민군 → 청 베이징 점령 WITH 오삼계(명 장수)의 도움 → 청 베이징(연경)으로 천도 → 청 중국 통치 		
	강희제	삼변의 난 (1673 ~ 1681) 진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삼변: 오삼계, 상가희(상지신), 경정충이 각각 다스리던 지역 → 삼변이 청에 불만을 갖고 반란 → 강희제가 삼변의 난 진압 	
		타이완 정씨 세력 진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이완 정성공 및 정씨 세력(반청 세력) 진압, 타이완 복속 	
	옹정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정은제 전국 실시(18C 초): 정세를 지세에 합쳐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(지세만 납부) • [[대의각미록]] 편찬: 만주족의 종원(중국) 지배 합리화(문화적 화이론) 		
	건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영토 확보: 티베트, 신장(위구르), 몽골을 포함하는 최대 영토 확보 • [[사고전서]] 편찬 • 공행 설치 IN 광저우 • 매카트니 사절단 교역 확대 요구 거부 		
	통치 방식	한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 정부가 신사층(지배 계급) 장악 → 신사층을 통해 향촌 사회 지배 	
		만주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현을 설치해 직접 지배 	
		점령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번부를 설치해 간접 지배 : 소수 민족의 지배자(토착 지배자)를 통해 간접 통치 IN 티베트, 몽골, 위구르(신장) 등 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: 조선, 에도 막부

조선(후기)	정치	인조	• 영정법 실시: 지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	
		효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복벌론 주장: 청 정벌 FOR 병자호란 복수 • 조선 중화주의: 조선이 중화(한족)의 문명을 계승했다는 사상 	
		숙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동법 확대 시행: 공물을 토산물(특산품) 대신 쌀, 동전 등으로 납부 • 한국 발생: 집권 봉당이 한번에 교체되는 현상 	
		영조·정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균역법(영조) 실시 • 탕평책 실시 FOR 봉당의 폐해 개선 BUT 실패 • 정조 사후 세도 정치 전개: 특정 가문이 권력 독점 	
	군사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변사 기능 강화: 국방, 외교, 행정을 모두 결정하는 최고 기구 • 국방력 강화: 5군영, 속오군 설치 		
	사회	• 새로운 신분제 등장: 군공, 납속책, 도망 노비 → 양천제 붕괴 → 새로운 신분제 등장		
	청과 대외 관계	복학 운동	• 복학 운동(18C) : 현실을 직시하고 청을 배우자	
		연행사 (1637 ~ 1894)	시기	• 조선 → 청
	목적		• 청에게 조공 바침, 청 황제 생일 축하, 청 학자들과 학문 교류	
	일본과 대외 관계	통신사 (1607 ~ 1812)	시기	• 조선 → 에도 막부
목적			• 양국 우호 관계 유지, 일본 내부 사정 탐색, 양국 학자들의 학문 교류	
에도 막부	막번 체제	• 막번 체제: 막부의 쇼군은 중앙·직할지 지배 + 지방의 다이묘는 번(영지) 통치		
	산킨코타이 제도	목적	• 다이묘 통제 , 천황의 정치 참여 배제	
		시행	•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1년마다 교대로 머물게 함 + 가족은 에도에 인질로 머무름 → 다이묘 제정 부담↑	
	병농 분리	• 무사, 농민과 수공업자, 상인으로 구분되는 신분 제도가 확립		
	자국 중심 사상	• 일본형 화이관(화이사상):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나라		
	대외 관계	청과 대외 관계	• 청과 국교 X	
조선과 대외 관계		• 조선과 국교 재개(1607) → 통신사를 통해 조선과 교류	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임진왜란, 병자호란 지도

공부법

- 16세기 동아시아 정세: 명, 조선, 일본의 상황을 이해하기
- 임진왜란, 정묘·병자호란: 전쟁의 배경 - 전개 과정 - 결과를 완벽하게 알아두기

임진왜란



정묘·병자호란

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16세기 동아시아

명	정치 혼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무능한 황제 + 환관이 국정 차지 + 이갑제 해체 → 사회 혼란 	
	북로남왜	북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쪽의 오랑캐(몽골)가 조공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명 공격 ()의 변(1449): 명 황제가 몽골 ()부에게 포로로 잡힘 → 만리장성 보수 ()의 변(1550): 몽골 ()부가 베이징 포위
		남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의 난(1523): 일본 무역선이 Ningbo에서 난 일으킴 → 명이 감함 무역 중단(1547) → 왜구 불만↑ + 무로마치 막부의 중앙 통제 약화 → 왜구(후기 왜구)가 명 동남 해안 침략 → 왜구(후기 왜구)는 동중국해·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 확장, 밀무역 가담
	장거정 개혁 (1572 ~ 1581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북로남왜 위기 → 명 재정 악화
		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: 명 만력제 때 내각 대학사 ()시행: 세금을 지세(토지세)와 정세(인두세)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 ()과 강화(화해) FOR 군사비 절감 단속 강화: 만리장성 방어 강화, 남쪽 왜구 단속 강화 관료 업적 엄격하게 평가
결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명 재정 호전 BUT 장거정 사후 관료들의 불만↑ & 환관의 부패↑ → 정치 혼란 	
조선	정치 상황	15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훈구 세력이 정국 주도
		16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림 세력이 정국 장악: 봉당 형성, 성리학 중심 사회 구축 BUT 봉당 간 대립 심화 수취 제도 모순: [해지주의 토지 경병 심화, 방납제 운용 → 백성 부담↑ 국방력 약화: 장기간 평화 및 군역 제도의 모순으로 국방력 약화
	명, 여진과 대외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명과 대외 관계: 조공·책봉 관계 유지 여진과 대외 관계: 교린 관계(대등한 위치에서 교류, 우호 관계 유지) 	
일본과 대외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린 관계: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, 우호 관계 유지 3포 개항(15C 초) FOR 일본과 무역: 부산포(부산), 제포(진해), 염포(울산) 계해약조 체결(세종, 1443): 일본과 조선이 ()에 설치한 ()을 중심으로 제한된 교역 전개 BUT 3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무역 확대 요구 → 조선 정부가 일본인 통제 강화 → 일본인들이 ()(1510), ()(1555) 일으킴 → 조선은 비변사 설치 FOR 외적 침입 대비 		
일본	센고쿠 시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발발(1467 ~ 1477): 쇼군 후계자를 둘러싼 내란 → 이후 () 시대 전개(1467 ~ 1590): 센고쿠 다이묘들 간 패권 다툼이 진행되는 시대 → 일본이 () 도입 BY ()(1543) → () 전투(1575) : 오다 노부나가 의 조총 부대 +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 VS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부대 → () 승리 BUT 사망 → 오다 노부나가 의 부하 ()가 센고쿠 시대 통일(1590) 	
	도요토미 히데요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: 무사와 조닌은 조카비치(다이묘 성 주변)&농민은 농촌에 거주, 에도 막부까지 유지 농민들의 (), () 금지: 하극상 풍조 사라짐 토지 조사 시행 → 도량형 통일, 토지 단위 통일, 연공(세금) 기준 마련 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		임진왜란	
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)가 센고쿠 시대 통일(1590)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권력 강화: 전쟁을 통해 센고쿠 다이묘의 군사력 약화시키는 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권력 강화 시도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과의 무역 확대 요구 • 조선의 통신사 파견(1590) → 조선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의견 채택 		
전개	임진왜란 (1592)	일본의 침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명가도: 일본이 조선에게 명 정벌에 협력할 것을 요구 → 조선이 일본의 요구를 거절 → 전쟁 발발: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() 상륙(1592) → 일본군은 ()을 활용해 부산진 전투 승리 → 일본이 (), () 함락: 선조(조선 왕)는 의주까지 피난 → 이순신 한산도 대첩 승리: 일본군 보급로 차단 + 조선 전국에서 의병 활약
		명의 참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참전(명 만력제) FOR 라오동반도와 베이징 보호 :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()으로 확대 → 조·명 연합군의 () 탈환(명 이여송 참전) → BUT 명군이 () 전투에서 () (명 이여송 참전) → 전황 교착 상태에 빠짐 → 명의 제의로 () 협상 시작(조선은 반대, 1593 ~ 1596) → 일본의 무리한 강화 조건으로 협상 결렬
		일본이 제시한 강화 조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황제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비로 삼는다. • 명과 일본 양국의 전권 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한다. • 조선의 () (경상, 전라, 충청, 경기)를 일본에 할양한다. • 조선의 왕자와 대신을 일본에 볼모로 보낸다. • 명과 일본 간의 ()을 재개하여 관선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한다. • 일본은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송환한다. • 조선의 중신이 일본에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.
		정유재란 (159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 발발(1597) →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→ 일본군 철수(1598)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임진왜란 이후의 동아시아

임진왜란의 결과	명	재정난 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으로 인해 재정난 심화 →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 각 지방에 환관 파견 → 지방에서 무리한 광산 개발 및 세금 징수 + 신사증과 환관의 전횡(부패) → 농민 봉기↑
		국방력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(대포) 수입 BY 네덜란드(17C)
	조선	전쟁 피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의 피해↑: 인구 감소, 토지 황폐화, 조선인들이 일본 노예로 끌려감 재정 악화 → 공명첩 발급 FOR 부족한 재정 보충 훈련도감(중앙군) 창설: 포수·살수·사수로 구성
		명 숭배 인식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: 명 숭배 인식 강화 → () 세움 FOR 명 황제 모심 관우 숭배 사상 유입 BY 명 EX) 동묘, 관우상
		일본과 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담경채환사 파견(1607) : 조선 → 에도 막부 FOR 일본 화친 요청에 회답 및 포로 송환 요구 조선과 일본 국교 재개(1607) () 체결(1609): 조선이 쓰시마를 통해 에도 막부와 무역 재개 () 파견(1607 ~ 1812) : 조선 → 에도 막부 FOR 학문·문화 교류, 양국 우호 관계 유지, 일본 국정 탐색
	일본	임진왜란의 영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진왜란에서 많은 군인들 사망 → 남은 무사들과 농민들의 세금 부담 & 노동력 부족↑ → 조선인들을 포로로 잡아와 인력난 해결
		에도 막부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 전투(1600) : 서군(이시다 미쓰나리) VS 동군(도쿠가와 이에야스) → 동군(도쿠가와 이에야스) 승 → ()가 에도 막부 수립(1603)
후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누르하치가 팔기제 정비 → 여진족 통일 → 후금 건국(1616), 수도: 허투알라 		
임진왜란 이후 문물 교류	명 → 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문용: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파병된 명 장수, 조선에서 궁궐 축조 사업에 참여 	
	일본 → 조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항왜: 임진왜란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, 대략 1만 명 () (사야가, 일본인): 항왜, 조선에 화약 제조법·조종·사격술 등 전파 고추, 담배 등 신작물 전래 	
	조선 → 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재 약탈(조선 → 일본): 도자기, 서적, 금속 활자 등 약탈 TO 일본 인적 자원 약탈(조선 → 일본): 유학자, 도공, 목수, 한지 제작공, 인쇄공 등 끌고 감 TO 일본 () (도공): 임진왜란 중 일본에 끌려감, 일본에서 () 자기 생산(고령토로 제작) () (유학자): 정유재란 중 일본에 끌려감, () 와 교류 김환: 임진왜란 중 일본에 포로로 끌려감, 일본의 행정·재정 업무에서 활약 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		정묘·병자호란
후금 건국	건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가 팔기제 정비 → 여진족(만주족) 통일 → ()건국(1616) 수도: ()(흥경)
	팔기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: 후금청의 행정·군사 조직 조직 방법: 후금의 남성을 8개 기(깃발)로 나눔 → 후금의 남성들은 평소엔 일반인으로 생활, 전쟁 시에는 군인으로 동원
	후금 VS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후금 VS 명: 누르하치는 후금 건국 이후 명과 대립 → 명이 조선에게 파병 요청 → 광해군(조선)의 (): 강홍립 파병 BUT 후금과 직접 전투 피할 것을 지시 → ()전투(1619)에서 조·명 연합군 패배, ()은 후금에 항복 → 후금이 ()지방 차지 → 조선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 거절, 후금과 우호 관계 유지
조선	광해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 대장 및 호적 재정비 궁궐 및 성곽 수리 중립 외교: () ↔ () 사이에서 중립 외교
	인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인이 광해군 중립 외교에 불만 → ()발발(1623): 서인이 정변 일으킴 → 광해군 폐위, 인조 즉위
정묘호란 (1627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군대가 평안도 ()에 주둔(1622 ~ 1629) FOR 후금 정벌 및 라오동 지방 수복 → 인조(서인)의 ()정책: 명과 친하게 지내고,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→ 명이 인조반정을 인정하는 대가로, 조선에게 모문룡과 함께 후금을 공격해달라고 요구 → 인조가 명의 요구 수용 → 후금이 조선에 불만
	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이 조선 침략 → 조선의 관군, 의병이 후금에 대항
	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관계 체결: 후금이 형, 조선이 동생
병자호란 (1636 ~ 1637)	배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)가 ()건국 및 스스로를 ()로 칭함(1636) → 청이 조선에 군신 관계 요구 → 조선 내 척화론(윤집: 청과 싸우자) VS 주화론(최명길: 청과 화해하자) → ()주장 채택 → 조선이 청의 군신 관계 요구 거부
	전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홍타이지가 직접 조선 침략 → 인조는 ()으로 피신해 항전 → 왕비·왕족이 피란갔던 강화도 청에게 함락 → 조선 구원군마저 청에게 패배
	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조가 ()에서 항복 청과 ()관계 체결, ()과 국교 단절 조선의 소현 세자가 청으로 끌려감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: 청

청	명 멸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명 멸망(1644) BY ()의 농민군 → 청 베이징 점령 WITH 오삼계(명 장수)의 도움 → 청 ()으로 천도 → 청 중국 통치 		
	강희제	() (1673 ~ 1681) 진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삼변: 오삼계, 상가희(상지신), 경정충이 각각 다스리던 지역 → 삼변이 청에 불만을 갖고 반란 → 강희제가 삼변의 난 진압 	
		() 세력 진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타이완 정성공 및 정씨 세력(반청 세력) 진압, () 복속 	
	옹정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) 전국 실시(18C 초): 정세를 지세에 합쳐 은으로 한꺼번에 징수(지세만 납부) • [] 편찬: 만주족의 종원(중국) 지배 합리화(문화적 화이론) 		
	건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대 영토 확보: 티베트, 신장(위구르), 몽골을 포함하는 최대 영토 확보 • [] 편찬 • () 설치 IN 광저우 • () 사절단 교역 확대 요구 거부 		
	통치 방식	한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 정부가 신사층(지배 계급) 장악 → 신사층을 통해 향촌 사회 지배 	
		만주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군현을 설치해 직접 지배 	
점령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)를 설치해 간접 지배 : 소수 민족의 지배자(토착 지배자)를 통해 간접 통치 IN 티베트, 몽골, 위구르(신장) 등 	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병자호란 이후의 동아시아: 조선, 에도 막부

조선(후기)	정치	인조	• 영정법 실시: 지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4두로 고정	
		효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) 주장: 청 정벌 FOR 병자호란 복수 • 조선 (): 조선이 중화(한족)의 문명을 계승했다는 사상 	
		숙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동법 확대 시행: 공물을 토산물(특산물) 대신 쌀, 동전 등으로 납부 • 환국 발생: 집권 봉당이 한번에 교체되는 현상 	
		영조·정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균역법(영조) 실시 • 탕평책 실시 FOR 봉당의 폐해 개선 BUT 실패 • 정조 사후 세도 정치 전개: 특정 가문이 권력 독점 	
	군사 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변사 기능 강화: 국방, 외교, 행정을 모두 결정하는 최고 기구 • 국방력 강화: 5군영, 속오군 설치 		
	사회	• 새로운 신분제 등장: 군공, 납속책, 도망 노비 → 양천제 붕괴 → 새로운 신분제 등장		
	청과 대외 관계	복학 운동	• () 운동(180): 현실을 직시하고 청을 배우자	
		() (1637 ~1894)	시기	• 조선 → ()
	일본과 대외 관계	()	시기	• 조선 → ()
		(1607 ~1812)	목적	• 양국 우호 관계 유지, 일본 내부 사정 탐색, 양국 학자들의 학문 교류
에도 막부	() 체제	• 막번 체제: 막부의 쇼군은 중앙·직할지 지배 + 지방의 다이묘는 번(영지) 통치		
	() 제도	목적	• () 통제, 천황의 정치 참여 배제	
		시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다이묘가 자신의 영지와 에도에 1년마다 교대로 머물게 함 + 가족은 에도에 인질로 머무름 → 다이묘 제정 부담↑ 	
	() 분리	• 무사, 농민과 수공업자, 상인으로 구분되는 신분 제도가 확립		
	자국 중심 사상	• 일본형 화이관(화이사상):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나라		
대외 관계	청과 대외 관계	• 청과 국교 X		
	조선과 대외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선과 국교 재개(1607) → 통신사를 통해 조선과 교류 		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기출 선지 확인

평가원 기출 선지

1. ()은/는 [케다가스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. [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2. ()은/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3. ()은/는 몽골 오이라트부와의 전투에서 황제가 사로잡혔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4. ()은/는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였다. [2021학년도 [대수능]
 5. ()은/는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6. ():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한 사건 [2024학년도 [대수능]
-
7. 임진왜란 중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. (O/X) [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8. 임진왜란 중 일본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하였다. (O/X) [2021학년도 9월모의고사]
 9. ()은/는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10. 임진왜란은 벽제관 전투 이후 전황이 교착 상태가 되었다. (O/X)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1. 명 만력제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였다. (O/X) [2022학년도 [대수능]
 12. 임진왜란 이후 아리타에서 자기를 빛고 있는 장인을 볼 수 있다. (O/X) [2023학년도 [대수능]
-
13. () 중 청의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4. ()은/는 사르후 전투에 참여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15. ()은/는 조선과 명의 국교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6. ()은 가도에 주둔한 모문룡을 지원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7. ()은 후금을 건국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8. ()은/는 인조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19. ()은/는 ()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20. 조선은 ()와/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21. ()은/는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. [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22. () 중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. [2024학년도 [대수능]
-
23. ()은/는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24. ()은/는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25. ()은/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번의 난을 진압하였다. [2021학년도 [대수능]
 26. ()은/는 한인 무장 출신인 오삼계 등이 일으켰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27. ()은/는 매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. [2022학년도 [대수능]
 28. 조선 후기엔 만동묘를 참배하는 양반을 볼 수 있다. (O/X) [2023학년도 [대수능]
 29.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효종이 복벌을 추진하였다. (O/X) [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30. ()은/는 ()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
 31. () ~ ()은/는 병농 분리 정책을 운용하였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
 32. ()은/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기출 선지 정답

	기출 선지 정답
16C 동아시아	1. 오다 노부나카 는 다케다 가쓰요리의 군대를 격파하였다. [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] 2. 오다 노부나카 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 3. 명 은 몽골 오이라트부와의 전투에서 황제가 사로잡혔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 4. 명 은 장거정을 등용하여 몽골과의 강화를 추진하였다. [2021학년도 [대수능] 5. 도요토미 히데요시 는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 6. 경술의 변 : 몽골이 베이징을 포위한 사건 [2024학년도 [대수능]
임진왜란	7. 임진왜란 중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 등을 요구하였다. (O) [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] 8. 임진왜란 중 일본이 명에게 무역 재개 등을 요구하였다. (O) [2021학년도 9월모의고사] 9. 명 은 벽제관 전투에서 패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 10. 임진왜란은 벽제관 전투 이후 전황이 교착 상태가 되었다. (O)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1. 명 만력제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병력을 파견하였다. (O) [2022학년도 [대수능] 12. 임진왜란 이후 아리타에서 자기를 빚고 있는 장인을 볼 수 있다. (O) [2023학년도 [대수능]
정묘·병자호란	13. 병자호란 중 청의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4. 강홍립 은 사르후 전투에 참여하였다. [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] 15. 병자호란 은 조선과 명의 국교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6. 정묘호란 은 가도에 주둔한 모문룡을 지원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7. 누르하치 는 후금을 건국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8. 청 흥타이지 는 인조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 19. 광해군 은 명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 20. 조선은 후금 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 21. 청 흥타이지 는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. [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] 22. 병자호란 중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다. [2024학년도 [대수능]
병자호란 이후 동아시아	23. 청 강희제 는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진압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 24. 조선 은 에도 막부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. [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] 25. 청 강희제 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삼번의 난을 진압하였다. [2021학년도 [대수능] 26. 삼번의 난 은 한인 무장 출신인 오삼계 등이 일으켰다. [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] 27. 청 건륭제 는 매카트니 사절단을 접견하였다. [2022학년도 [대수능] 28. 조선 후기엔 만동묘를 참배하는 양반을 볼 수 있다. (O) [2023학년도 [대수능] 29.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효종이 복벌을 추진하였다. (O) [2023학년도 6월 모의고사] 30. 에도 막부 는 조선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. [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] 31. 도요토미 히데요시 ~ 에도 막부 는 병농 분리 정책을 운용하였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 32. 에도 막부 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실시하였다. [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]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연표 외워보기

토목보의 변	()년
오닌의 난	()년 ~ ()년
3포 왜란	()년
닝보의 난	()년
일본 조총 도입	()년
경술의 변	()년
을묘왜변	()년
장거정 개혁	()C
나가시노 전투	()년
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센고쿠 시대 통일	()년
임진왜란	()년 ~ ()년
세키가하라 전투	()년
에도 막부 수립	()년
회담경쇄환사 파견, 일본과 조선 국교 재개	()년
통신사 파견	()년 ~ ()년
기유약조	()년
후금 건국	()년
사르후 전투	()년
모문룡 가도 주문	()년 ~ ()년
인조반정	()년
정묘호란	()년
홍타이지 청 건국	()년
병자호란	()년
연행사 파견	()년 ~ ()년
명 멸망	()년
삼번의 난	()년 ~ ()년

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연표 외워보기 정답

토목보의 변	1449년
오닌의 난	1467년 ~ 1477년
3포 왜란	1510년
닝보의 난	1523년
일본 조총 도입	1543년
경술의 변	1550년
을묘왜변	1555년
장거정 개혁	160 말(1572 ~ 1581)
나가시노 전투	1575년
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센고쿠 시대 통일	1590년
임진왜란	1592년 ~ 1598년
세키가하라 전투	1600년
에도 막부 수립	1603년
회담경쇄환사 파견, 일본과 조선 국교 재개	1607년
통신사 파견	1607년 ~ 1812년
기유약조	1609년
후금 건국	1616년
사르후 전투	1619년
모문룡 가도 주문	1622년 ~ 1629년
인조반정	1623년
정묘호란	1627년
홍타이지 청 건국	1636년
병자호란	1636년
연행사 파견	1637년 ~ 1894년
명 멸망	1644년
삼번의 난	1673년 ~ 1681년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5번

6 - 1.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?

이여송은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한성에서 30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벽제관까지 진격하였다. 그러나 대승에 도취되어 본대를 뒤로 한 채 급하게 추격하다 보니 그를 따라 온 병력은 기병 20명에 불과하였다. 이때 매복해 있던 적들이 활을 쏘아 기병을 쓰러뜨리고 이여송을 사로잡으려 하였다. 그 부하들이 간신히 이여송을 구하여 포위를 뚫고 개성으로 물러났다.

- ①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였다.
- ②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하였다.
- ③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을 요구하였다.
- ④ 오다 노부나가 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.
- ⑤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.

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4번

6 - 2. (가), (나)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(가)은/는 병사를 보내어 (나)의 왕자와 궁빈, 대신의 가솔을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, 못장수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.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. … (중략)… (가)이/가 다다른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.

- ○○○○○○비 -

- ① (가) - 후금을 건국하였다.
- ② (나) - 아담 살과 교류하였다.
- ③ (가)는 (나)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.
- ④ (나)는 (가)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.
- ⑤ (나)는 (가)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.

6.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

2024학년도 6월 모의고사 5번

6 - 1.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?

임진왜란

이여송은 평양성 전투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한성에서 30리 밖에 떨어지지 않은 벽제관까지 진격하였다. 그러나 대승에 도취되어 본대를 뒤로 한 채 급하게 추격하다 보니 그를 따라 온 병력은 기병 20명에 불과하였다. 이때 매복해 있던 적들이 활을 쏘아 기병을 쓰러뜨리고 이여송을 사로잡으려 하였다. 그 부하들이 간신히 이여송을 구하여 포위를 뚫고 개성으로 물러났다. → 임진왜란(1592 ~ 1598)

- ① 모문룡이 가도에 주둔하였다.
- ②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투항하였다.
- ③ 일본이 조선 남부 4도 할양을 요구하였다.
- ④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.
- ⑤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베이징을 점령하였다.
- ① 1622년~1629년
- ② 1619년
- ③ 임진왜란
- ④ 1575년
- ⑤ 명나라 멸망(1644년)

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4번

6 - 2. (가), (나)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홍타이지&인조

(가)은/는 병사를 보내어 (나)의 왕자와
→ 홍타이지 → 인조

궁빈, 대신의 가솔을 포로로 사로잡은 다음, 못장수들에게 이들을 해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. 이로써 포로가 된 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. … (중략)… (가)이/가 다다른 한강의 삼전도 남쪽에 비석을 세운다.

- ○○○○○○에 -

- ① (가) - 후금을 건국하였다.
- ② (나) - 아담 살과 교류하였다.
- ③ (가)는 (나)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하였다.
- ④ (나)는 (가)에게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.
- ⑤ (나)는 (가)의 요청으로 강홍립을 파병하였다.
- ① 누르하치
- ② 소현 세자
- ③ 홍타이지가 인조에게 요구
- ④ 에도 막부가 조선에 요청
- ⑤ 광해군이 명의 요청으로 파병